

발로 댄 소통경영...“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더라”

취임 1년 맞은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지난 1년간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길과 공사가 해야 할 역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박재순(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박 사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에 따라 농업현장을 부지런히 누비며 ‘현장경영’과 ‘소통경영’에 매진했다. 올해 찾은 현장만 106개소에 달한다. 이를 통해 농·어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취임 후 첫 발걸음으로 충남 당진 석문지구 간척지로 내려가 농민들을 직접 만나 염해(鹽害) 피해 영농손실 보상제도를 개선했다.

또 전남도와 1년여를 끌어오던 J-프로젝트 간척지 양도 양수문제를 해결했고, 강원도 철원의 DMZ내 황금노르지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신속한 예산배정으로 사업을 앞당겨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활동상은 농도인 전남도에서 9급

진중이며, 현재까지 163지구를 완료한 상태이다. 상습침수 농경지 80지구 1만9000ha의 배수 개선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임기 내에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해 위험시설 보수·보강, 농경지 배수능력 개선, 지류·지천 등 안전영농을 위한 곡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공사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닥칠 더 큰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예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개방 대응 수출농업 육성=박 사장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 정책사업으로 지류지천, 어촌, 해의 등 성장동력 분야의 사업모델 개발 및 정책사업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해외 농업개발 등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취임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장중심 경영’을 통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년여 추진해온 ‘농·어촌 집 고쳐주거’이다. 공사는 ‘다솜동지 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특고노인·소년가장·다문화가정 등 농·어촌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새롭게 지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만도 현재까지 공사직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54가구의 농·어촌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또한 최근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후원활동과 모국방문 지원도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공사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20쌍의 합동 결혼식을 갖는다.

공사는 오는 2014년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다. 지난 3월 신청사를 착공해 201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건물을 세우고 직원들이 이사한다고 임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이 새로운 미래 도시로 자리 잡고 발전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본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장은 “안전적인 영농기반 조성 과 청정농수 공급, 재해대응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형 농업 생산기반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1년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반을 닦은 한해였다면, 남은 임기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남기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지역 4대강 사업 마무리 단계

영산강 하구둑 개선·저수지 독 높이기 내년 완료

전남지역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과 저수지 독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은 배수갑문과 연락수로를 확장해 재해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과 배수갑문 확장 공사 등 대부분의 공정을 마치고, 내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3개 공구로 나눠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담수호 인근의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영산호와 영암호의 배수갑문 확장과 교량설치, 제수문 보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어도설치를 통한 생태계 복원, 수로교와 동양교

확장, 통신문 설치 등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갖춘 시설로 만들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이다.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은 용수가 부족하거나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의 독을 5~15m 이상 높여 담수량을 높이고 재해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이다.

4대강 준설토를 활용해 저지대 농지를 높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역시 전남권에 8개 지구 630ha의 농지에 걸쳐 시행했으며, 올해 모두 완료됐다.

김행은 전남지역 본부장은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앞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대비를 위한 사업에 집중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어촌개발에 박차 가한다

특화발전지원 특별법 통과...3개년 중장기 전략 수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한국농촌공사에 ‘어촌’을 넣어 현재 사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100여년 동안 줄곧 농촌을 대상으로 주력해왔던 공사가 어촌을 사업영역에 포함한 것이다.

올해는 공사가 어촌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해이다.

공사가 그동안 입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어촌 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어촌·어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수산업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어촌·어항법’과는 달리 어민들의 협력과 자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경관 가꾸기, 어업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어촌 발전사업의 제도를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지역조직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등 어촌개발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올해 어촌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어촌개발과 관련한 3개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로 어촌관광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어촌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경남 남해군 등 12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14개 권역의 어촌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으로 공사는 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마을의 자율적, 자생적 특화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300개소의 특화된 어촌마을을 육성할 방침이다.

박재순 사장은 “이달말 조직전단을 거쳐 어촌부서를 꼭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어촌사업 관련 부서와 인력을 늘려서 명실상부한 어촌 전문기관이 되도록 활동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울들어 106곳 찾아 농어민 목소리 적극 반영 농어촌 복지 증진·삶의 질 향상 최우선 가치 2014년 나주혁신도시 본사 이전, 새 역할 할 것

(서기보) 공무원으로 출발해 1급(관리관)까지 오르며 43년간 공직에 몸담은 동안 공보관과 강진군수, 농·수산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됐다.

◇올해 농업현장 106개소 찾아=올해는 유독 가뭄과 태풍,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가 심해 박 사장의 현장경영이 빛을 발했다.

박 사장은 104년 만에 찾아왔다는 극심한 가뭄 때 영농현장에 상주하면서 관정개발과 하천 굴착 등 농업용수 공급을 직접 챙겼으며, 태풍 때도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뭄 현장에서 총리에 건의해 전국 74개 저수지 준설 사업비 163억원을 확보하는 등 집무실보다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 공사는 앞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저수지·양배수장 등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704개소의 개·보수 사업을 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간척지와 시설을 활용한 수출농업 육성을 중점 추진해왔다.

공사는 영산강 간척지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 회사를 육성하고자 5개지구 713ha에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인 ‘2030세대 농지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농업개발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 사장은 인도네시아 까리안템 건설사업과 콩고 렘바임부 정수장 건설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다.

◇사회공헌 활동 지속 추진=박 사장은 무엇보다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공사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현재 4

년여 추진해온 ‘농·어촌 집 고쳐주거’이다. 공사는 ‘다솜동지 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특고노인·소년가장·다문화가정 등 농·어촌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새롭게 지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만도 현재까지 공사직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54가구의 농·어촌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또한 최근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후원활동과 모국방문 지원도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공사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20쌍의 합동 결혼식을 갖는다.

공사는 오는 2014년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다. 지난 3월 신청사를 착공해 201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JNJ TOUR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Event .1 2인 예약시 관광지무료쿠폰!
3인 예약시 **렌트24시간 중형차급!**
4인 예약시 아이스 뮤지엄 2매!

쿠폰01 노력항내관광지 할인쿠폰

쿠폰02 노력항내 펜션 리조트 호텔 할인

쿠폰03 노력항내 렌터카 할인

NAVER 정남진투어 검색을 검색하세요!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배타고 가는 제주여행~! 일~목 149,000
제주여행 PKG 금~토 169,000
한라산등반 1박2일 129,000

일정안내

1일차 중식/수목원테마파크(세계적인 열음조각 열음공전과 트릭아트전시관)/도깨비 도로(거꾸로 올라가는듯한 자동차! 신비한 착시현상)/한라 수목원(60여종의 희귀식물과 광이오름을 끼고 삼림욕의 최고명소)/천왕사(한라산 정력에 기암괴석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아름다운절)/석식 후 숙소이동

2일차 조식후 전일관광/유리의성(세계의 유명한 유리예술 조형물이 실내_외에 대규모로 전시되고있) /화산 꽃자왈 화산 생태 숲길 올레길(40분) /정보빌리지(코끼리소 국내 유일의 세계 최대 코끼리 테마 소) /중식/쉬리언덕(롯데 풍차 정원-중문해수욕장 아름다운 올레길) /**직불관광(서귀포 칠십리 유람선 OR 디마파크 / 서귀포월드) /**석부작각굴데 마농원(황금물결이 춤추는 감동발과 제주 특산물 재배 현장체험) /천지연폭포(하늘과 땅이 만나는곳!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새연교(작고 아름다운 무인도 새섬을 연결한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 /시크릿스테마파크(누드조각, 누드미술관, 성문화관등 예술로 승화된 종합문화공원) /석식후숙소이동

3일차 조식후 전일관광/공예품 전시장(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제주공예품등) /선녀와나무꾼(60~70년대 그때 그시절로의 여행) /**직불관광(매직미술소OR몽골리안 마상쇼) /**제주마 승마체험(제주의 상징 제주마와 함께 짜릿한 승마체험) /중식/성음민속마을(전통초가 관람 제주인의 역척스런 생활 엿보기) 일출랜드(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곳 미천동굴과 자연테마공원) /신앙성지코지(자연 수석장으로 불리는 해안 절경 명소, 성산일출봉 조망) /아트랜드(분재와 미술관의 만남 귀여운 반달곰의 재롱도 특별함을 선사함)

포함사항 : 전일정/입장료/조식2회/중식2회/석식2회/숙박료/차량료/안내가이드/주차료/간식/생수
불 포함 : 기사,가이드 봉사료(1인 만원)/적불관광2회 기타등.